

# 휴가 피크... 범죄·물놀이 '주의보'

### 휴가비 마련하려 찔질방서 상승 절도 20대 둘 구속

### 지리산 2명 급류 실종·만성리 60대 물에 빠져 숨져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한 10~20대들의 절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주요 피서지에서 수산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휴가비 마련 범죄 잇따라=조모(20)씨 등 2명은 3일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찔질방을 돌며 상승적으로 손님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에 구속됐다.

조씨 등은 지난달 31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 서구 매월동 M찔질방에서 잠을 자던 김모(여·43)씨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는 등 일주일 간 광주지역 찔질방을 돌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7대를 훔친 혐의

이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훔친 스마트폰을 팔아 휴가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16)양은 지난달 25일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거짓 취업을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에 붙잡혔다.

이양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20분께 광산구 S편의점에서 여주인 박모(50)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가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뒤 모뎀 등을 훔쳐

으로 드러났다. ◇수산사고도 잇따라=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지리산 계곡에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온 중학생 박모(15·광주시)군이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후 6시50분께 구례군 토지면 내서리 피아골 계곡에서 야영객 박모(41)씨와 아들(10)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이중 아들은 무사히 구조됐으나 박씨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는 여주시 만성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안모(67)씨가 물에 빠져 숨졌으며, 전남 오후 4시40분께에는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진모(여·53)씨가 해안가에서 40m 가량 파도에 떠밀려 가다가 목포해경에 구조됐다.

지난 2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동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42)·한모(여·37)씨 부부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이달 들어서만 전남지역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는 모두 20건.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수심이 얕다고 방심하거나 자신의 수영실력과 체력을 과신해 벌어지는 안전사고라는 게 전남소방본부 측 설명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전국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은 649명에 달한다. 원인으로 안전부주의(56%·363명), 수영미숙(28%·181명), 음주수영(8%·52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명구조 이렇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지난 3일 광주 영주실내수영장에서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상안전강사 강습 교육중, 수강생들이 물에 빠진 피서객 구조법을 익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휴가철 못 믿을 음식점들

###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식당

### 축산물 원산지 위반 87곳

휴가철 유명관광지나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 표

시나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축산물 원산지 및 이력표시 등을 특별단속해 모두 8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유명관광지·고속도로 휴게소·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보양식 전문식당,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벌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76개 업소, 쇠고기 이력표시 위반이 11개 업소였다.

이 가운데 영광군의 갈비찜 전문식당인 D식당 대표 김모씨(59) 등 72개 업소 대표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 업소와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한 11개 업소에 모두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지원은 이번 휴가철 축산물 일제단속을 오는 9일까지 계속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임신 확인만 했더라도...

### 군산 여성 살해 사건

### 국과수 '임신 아님'

지난달 24일 발생한 '군산 여성 실종 사건'은 불륜과 거짓 임신, 협박이 빛은 살인으로 끝을 맺었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해된 이모(여·40)씨 임신에 대한 부검을 마쳤지만 임신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태아가 형성된 흔적은 없었고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임신 초기 단계인지도 밝혀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이씨의 임신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실종되기 전 한 지인에게 7월 11일에 생리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이씨가 주장했던 임신 주기와 메시지의 내용이 상반된다.

여러 정황으로 드러난 이씨의 거짓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일단 자신에게는 죽음을 가져왔고, 피의자 정모(40) 경사에게는 살인을 저지르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은 정경사가 조금 더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임신 여부에 대해 숨진 이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정 경사에게 빨간줄이 그려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더니 정 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4일 정 경사를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



고흥서 외국인 자해 방화

지난 2일 오전 8시 45분께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의 한 주택 1층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했으나 주택 2층에서는 인도네시아인 S(24)씨가 손목에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2층으로 올라온 직후 불길 이 1층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S씨가 자해한 후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주지중기자 giju@kwangju.co.kr

불난줄 모르고 PC방서 게임 삼매경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2층 PC방에서 게임 삼매경에 빠져있던 이용객들이 뒤늦게 화재 사실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4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3일 밤 9시40분께 광주 서구 신안동 F노래방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노래방기계와 내부 등 30m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는 것.

○건물 2층 PC방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40여명이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고 긴급히 대피했는데, 게임방 업주는 "게임비를 못 받았지만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다시 유죄

### 드들강 차량 익사 사건

보모 구인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아내로 맞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열차량위탁 판결 끝에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사기·사기미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과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살인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을 시작한 지 8일밖에 안된 피해자가 밤늦게 인적이 드문 강가에 갈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강물에 빠진 차량의 모든 창문이 열린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강물에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6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강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처와 이혼한 뒤 인터넷에 보모 구인공고를 올리고 당시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박씨는 피해자 앞으로 수억원대 보험에 가입해 이 사고 후 2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고 2억 4000여만원을 다른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교통사고로 내사 종결됐지만 박씨는 4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 끝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사기죄만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대법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양영모(59)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안군청 공무

원 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hello tv**

# 헬로tv 가입하시면 반값!

LG LED TV

42형 LG 전자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990,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

23형 LG 전자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2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카사바릭 IPS패널의 Full HD LED TV | LED TV의 최하위세 적용 가격 | 헬로tv의 파워풀한 특별 서비스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

#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